

박동춘의 茶 이야기

⑤ 茶문화 쇠락기 조선시대

초의 선사, 조선 차문화 중흥 이끌다

조선 후기 민멸 위기에 놓인 차 문화를 중흥할 수 있었던 것은 초의 선사(1786~1866, 이하 초의)의 노력과 사대부들의 차에 대한 인식 변화에서 비롯됐다. 이런 변화의 흐름은 당시 연경(현재 북경)을 출입하며 청의 문물에 관심을 가졌던 유학자로, 대개 초의와 교유했던 사람들이 주도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의 차에 대한 관심에 부응한 것은 초의가 만든 초의차인데, 이는 우리 차의 우수성과 자긍심을 심어 주었던 좋은 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초의는 어떤 연구 과정과 발심을 통해 초의차를 완성했던 것일까. 그 과정은 이랬다. 바로 그가 출가한 운흥사는 차의 산지인 화순에 위치했기 때문에 사미승 시절 그곳에서 수행했던 스님들의 수행 규범을 익힐 수 있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차에 밝았던 대흥사의 완호 스님(1758~1826)이 겨울 한 철 운흥사 암자에 차를 마시며 수행했다는 점도 초의가 차에 눈을 뜨게 된 배경이라 생각한다. 물론 그가 본격적으로 차의 연구에 매진한 시기는 1830년경이다. 이는 1815년 김정희(1786~1856)와 해후한 후 차에 대한 관심이 증폭돼 1830년경 〈다신전〉을 편찬에서 확인된다. 물론 김정희는 초의가 차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 인물이다. 초의가 김정희를 만난 것은 1815년으로, 이해 겨울 첫 상경한 초의는 학림암에 머물며 수행할 때다.

이 무렵 김정희는 학림암으로 해봉 선사(?~1826)를 찾아와 공각소생(空覺所生)을 담론했고, 이 자리에 초의도 동석했다. 당시 초의는 해봉 선사와 김정희의 치열한 불교 논쟁을 곁에서 보면서 그의 해박한 식견에 감동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김정희가 연경에 갔을 때 옹방강(1733~1818)의 제자 완원(1764~1849)의 쌍비관에서 대접받았던 용단승설을 맛본 후 오묘한 차의 세계를 경험했던 이야기도 나눴을 것이리라. 그러므로 초의는 그의 차에 대한 깊은 안목과 관심에 주목했을 것이 아닐까. 아무튼 이를 계기로 초의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선종의 차 문화를 복원하려는 의지를 확고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초의는 〈다신전〉의 편찬 과정에서 초의가 주목한 제다법은 명대의 초청법이다. 바로 뜨거운 무쇠 솥에서 차를 덖는 방법이다. 이는 잎차를 만드는 제다법인데 초의는 대흥사에 차밭을 만들어 본격적인 제다 연구에 매진한 결과 맑고 경쾌하며 단맛과 싱그러움이 감도는 한국 차의 특성을 함의한 초의차를 완성했다. 이는 그가 제다법에 대한 해박한 이론을 두루 섭렵한 후 이를 토대로 제다의 실증 연구에 매진한 결과라 하겠다.

한편 초의는 1837년 홍현주(1793~1865)의 요청으로 〈동다송〉을 저술했다. 이 무렵 초의는 제다법을 거의 완성해 가던 시기이다. 실제 그가 초의차를 완성한 시기는 1842년경으로, 이는 김정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삼매(茶三昧)의 경지를 얻었다"는 극찬을 받았던 사실에서 확인된다.



무쇠솥에 차를 덖는 모습. 불을 이용하여 찻잎의 독성을 중화시키는 것이 제다의 시작이다.

김정희 영향으로 차문화 접해
'다신전' 편찬, 茶연구에 매진
초의가 주목한 제다는 '조청법'

한편 조선시대는 차 문화의 쇠락 시기로 정의한다. 이는 융성한 차 문화를 이룩했던 고려시대와 견주어 본다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대개 한 나라의 문화 융성과 쇠락은 어느 시대보다 융성했고 어느 때보다 발전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는 등 그 기준을 삼을 만한 시대가 있고, 이 시대에 비해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선시대의 차 문화는 고려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새로운 차 문화의 유형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경향을 보인다. 바로 차 문화의 질적 수준은 좋은 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의 유무(有無)와 음다층의 문예적인 소양과 식견, 다구의 실용성과 예술성이 함의된 다구로써의 완성도 등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그러므로 융성한 차 문화를 구가했던 고려시대에 비해 조선시대는 그 시대를 대표할 차 문화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결과는 조선이 건국한 후 태종 16년(1416년 9월) 예조의 건의로 기신제에 올리는 제물 중에 차를 술로 대체하라는 조칙이 내려진다. 이는 조선시대가 차에서 술로 전환이 됐음을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의 시기에도 차를 즐기는 명맥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다. 다만 차의 진수를 아는 이들이 점차 적어졌고, 임진왜란과 호란을 거치는 동안 차를 즐기거나 아는 사람이 더욱 드물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차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진수를 알아차릴 사람을 기다렸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차의 진면목을 알아차린 사람으로 정약용과 그 자제들, 초의와 그 제자들, 김정희와 그 형제들, 그리고 제자들, 신위, 박영보, 홍현주와 그 형제들 등이 있다. 실제 초의와 교유했던 북학파 경화사족들은 초의차를 통해 차의 진수를 경험함에 따라 차를 애호하는 계층으로 부상돼 이 시기에 차 문화를 이끌었다. 이뿐 아니라 조선 후기 차의 애호층 확대는 경제력을 갖춘 중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들이 주관한 시사회(詩社會)에서 차를 즐기며 시를 짓고 그림을 감상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김정희와 관련이 깊은 인물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18세기 말 이덕리는 진도에 유배된 후 이곳에 널려 있는 차나무를 보고 이를 활용해 나라에 도움이 되고 민생을 넉넉하게 할 방법을 제안했으니, 이는 그의 저술 〈기다〉에서 드러난다.

아울러 정약용도 〈상두지〉에서 쓸모없는 초목처럼 여겼던 차를 활용해 중국에 판다면 나라와 백성에게 실익을 안겨줄 것이라 했다. 이들의 차를 활용한 부국론은 제안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제안이 실행됐다면 조선 후기 차 문화의 흐름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해 보다 나은 문화의 유형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⑩

1. 다음 글을 어느 과학자의 발언내용이다. 이 과학자의 이름은?

'미래의 종교는 우주적 종교가 돼야 한다. 그동안 종교는 자연세계를 부정해 왔다. 모두 절대자가 만든 것이라고만 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종교는 자연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똑같이 존중한다는 생각에 기반을 둬야 한다. 자연세계와 영적인 부분의 통합이야말로 진정한 통합이기 때문이다. 나는 불교야말로 이런 내 생각과 부합한다고 본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현대의 과학적 요구에 상응하는 종교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교'라고 말하고 싶다.'

① 뉴턴 ② 에디슨 ③ 장영실 ④ 아인슈타인 ⑤ 토마스 헉슬리

해설 : 해당 내용은 아인슈타인이 1939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종교와 과학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한 말이다.

2. 중국이 1950년에 티베트를 점령했고, 티베트인 10만 여명이 1959년에 인도로 망명하면서부터 티베트 불교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티베트인들을 이끌고 인도에 망명정부를 수립하였으며, 살아 있는 관세음보살로 존경받고 있는 티베트의 최고 종교·정치의 지도자는?

① 틱낫한
② 암베드카르
③ 달라이 라마
④ 슐락시바락사
⑤ 아리야라뜨네

해설 : 달라이 라마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믿어지는 티베트 종교·정치의 최고 지도자이다.

3. [보기]를 읽고,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을 고르면?

[보기] 현대의 인간에게는 다음과 같은 정신적 상태가 나타난다. 정신적 귀의처를 잃고 고독과 자아 상실증에 빠지며, 목적 없는 경쟁의식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간다. 과학적 지식만으로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신적 방황에 빠지기도 한다.

위와 같은 현상을 두고 현대 사회를 ( )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다.

① 자동화 ② 정보화 ③ 기계화 ④ 대량 소비 ⑤ 인간성상실

해설 : 정신적 귀의처의 부재, 고독, 자아 상실증, 무한경쟁 등은 인간성을 잃게 하는 요소들이다.

4.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출가제자들의 수행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식사는 하루 한 끼 오전에만 걸식을 하였다.
② 발우만을 간직하고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였다.
③ 숲에 머물며 마을 사람들과는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
④ 옷은 사람들이 버린 누더기를 깨끗이 빨아 기워입었다.
⑤ 안거가 끝나면 각 지방을 돌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였다.

해설 : 걸식은 마을에 출가제자들이 직접 내려가 음식을 마을 재가자들에게 받아오는 것이다. 출가수행자는 삼의일발(세 벌의 옷과 하나의 발우) 및 진기약과 같은 몇 가지 상비품의 소유가 인정되었다. 최소한의 기준으로 해도 발우만 가지고 다니면 나형외도(벌거벗고 다니는 자이나교도들)이다.

5. 불교 발생 이전의 인도 사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원전 6세기경 상업이 발달하였다.
② 기원전 1500년경 아리안족의 도래로 인도대륙은 철기시대로 접어들었다.
③ 아리안족들은 사제(司祭)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농경사회를 형성하였다.
④ 상공업의 발달로 바라문 계급의 권위가 상실되고 중앙집권적 왕권이 점차 강화되었다.
⑤ 아리안족과 원주민인 드라비다족은 서로 화합하면서 당시의 사성 계급제도를 타파하였다.

해설 : 불교가 발생할 무렵 점차 사성 계급제도가 공고화되었다.

정답 : 1. ④ 2. ③ 3. ② 4. ③ 5. ⑤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010-7384-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